

## 1주차 강의자료 : 평가원의 이해

- 수능 국어의 본질에 대한 개괄적 이해 -

누군가가 내 삶을 보다 윤택하고, 보다 알차게,  
혹은 만족스럽게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다 보면  
나 자신은 줄곧 손발이 묶여 있는 꼴이 되고 만다.  
『잠들기 전에 읽는 긍정의 한줄』 中

## ‘수능 국어의 본질은 비문학에 담겨 있다.’

### ☞ 대체 왜 비문학인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영역별 시험의 성격 및 평가 목표, 학습 방법’<sup>1)</sup>에서 수능 국어의 시험 성격으로 ‘대학에서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受學)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 능력’이란 **정확히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활용하는 화자의 ‘언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언어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언어를 말하고 들으며, 읽고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이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해 능력을 가장 중시하여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 바로 **‘비문학(독서)’**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겠지만, **시험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정답을 결정 짓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문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비문학을 공부하고, 강의가 끝나면 그날까지 비문학만큼은 집요하게 묻고 늘어지게 될 이유 역시 여러분이 비문학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을 공부할 때에도 ‘정답을 결정 짓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이것이 완벽하게 체화되어 **‘습관화’**되어야 1등급을 넘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는 특정 영역(비문학, 문학, 화법, 작문, 문법 등)이 약해요’라고 제게 고민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정확히는 ‘특정 영역이 약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결정 짓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이러한 능력은 결국 비문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수능 국어에서 1등급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한다면 비문학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 그렇다면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비문학은 옆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숲’을 정확히 보는 것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숲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숲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 숫자 이상의 나무와 기타 식물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형성되기 위한 적절한 습도와 온도, 토양 조건, 식물들의 성장을 돕는 곤충과 미생물 등등이 갖추어져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은 **‘유기성’**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숲의 구성 요소들을 ‘유기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하나하나 정확히 보고 나아가 다른 숲들이 형성되는 패턴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숲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비문학도 이와 같습니다. ‘숲’이라는 전체를 **‘지문의 구조’**라고 본다면, 숲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들은 **‘유기성(일관성)’**이라는 원리 아래 문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문단과 문단의 관계는 지문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문의 형성 방법은 다행히도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고 우리는 몇 개의 지문만으로도 80% 이상의 예측 가능한 문장 패턴, 지문의 구조, 나아가 이것들로부터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패턴 및 선지의 패턴’까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출’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패턴(Pattern)’, 즉 ‘규칙(Rule)’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는 무조건 평가원 기출이지!’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어떻게 기출을 공부해야하는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별 의미가 없는 ‘n회독’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지문 내용도 기억나고 정답도 기억나서 푸는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라는 주장하기에 이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일차적인 목표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는 최적의 사고 과정은 무엇인지, 나아가 평가원이 문제를 구성하는 방법까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꺾 붙들어 매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신세계를 보게 될 테니.

1) 2016학년도 지침서 기준

< “지문을 보다”와 “문장을 읽다”의 정의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사회]**

**[1문단]**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2문단]**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3문단]**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4문단]**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문단]**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문단] “개념의 정의(문장)”**

: ‘지식 경영’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념의 정의’는 지문의 카테고리(인문/과학/사회/기술/예술)에 상관없이 지문 전체가 전개될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만큼은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2문단] “인물 1의 등장(지문 구조)” & “개념의 정의(문장)”**

- 1) 인물 1의 등장 :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해당 인물의 사상이나 주장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당 인물의 사상이나 주장으로 인해 뒤에서 다른 인물(인물 2)의 반박 혹은 계승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이는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 2) ‘암묵지’의 개념 :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지식’

**[3문단] “인물 2의 등장(지문 구조)” & “경우의 분류(문장)”**

- 1) 인물 2의 등장 : 인물 2인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였기 때문에 인물 1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반박한 것이 아닌,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문단과 3문단은 ‘계승 및 발전’의 관계로 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 2의 등장은 또다시 인물 3을 불러낼 수 있음을 염두하고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 2) 경우의 분류 :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의 공유 가능성을 기준으로 ‘암시지’와 ‘명시지’를 구분했고, 명시지가 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시 일종의 ‘대소 관계’를 형성하여 선지에서 활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문단] “여전히 인물 2의 주장(지문 구조)” & “경우의 분류(문장)”**

- 1) 다른 인물의 주장이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3문단과 4문단은 ‘인물 2의 주장’이라는 범주 하에 묶여야 합니다.
- 2) 경우의 분류 :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범주화  
 공동화 = 암묵지 → 암묵지 || 표출화 = 암묵지 → 명시지  
 연결화 = 명시지 → 명시지 || 내면화 = 명시지 → 암묵지

**[5문단] “지식 경영 실현의 조건(지문 구조, 문장)”**

: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노나카 이쿠지로의 주장이고, ‘지식 경영’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1문단에서부터 제시되었으므로 5문단은 완벽하게 일관성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문을 읽고 문장을 본다는 것’은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문제를 풀기에 앞서

다들 잘 알겠지만 내가 혼자서 여유 있게 문제를 푸는 상황과, 1분 1초가 시급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상황은 부여되는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든 수능 국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거친 후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①~⑤까지의 선택지(앞으로는 줄여서 ‘선지’) 중 특정 선지는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는 의도를 담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난이도에 따라 우리가 시험장에서 고민하게 되는 정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한 문제로 인해 한 문제를 풀어 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1~2 지문을 읽어보지도 못한 채 시험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특정 선지가 내게 어려움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르고, 내 실력에 따라 특정 선지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에 고민하게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글을 정확히 읽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문제를 푸는 습관에 대한 고심에 앞서 지문을 읽는 습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먼저는 글을 정확히 읽는 습관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애매한 선지는 일단 넘기는’ 습관을 통해 평균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애매하다’의 기준은(통상적으로) ‘해당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의 어디로 눈이 향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될 때 혹은 지문에 선지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추후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 자료에서는 숙제와 순서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4. 읽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대놓고 ‘지문의 구조’를 묻는 문항입니다. 이러한 문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지의 내용 역시 내용이 제한적이므로 기존의 기출을 가져다 놓고 지문의 구조와 선택지의 구성을 비교해 보세요.  
[ Ex. 15\_수능\_b\_사회(해겔/뒤르켐) ]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1문단 : 현대 사회에서~목소리가 높다)’은 제시되어 있으나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 이때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논리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넘겨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고민하는 시간이 줄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②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은 4문단, 즉 글의 후반부에서 등장하므로 해당 선지는 지문의 앞부분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1문단에서 ‘지식 경영의 개념’을 다룸으로써 ‘지식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고, 폴라니를 계승한 노나가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론’을 소개한 뒤, 마지막 문단에서 ‘지식 경영 실현의 조건’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 애매한 선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해당 선지에서만큼은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갖추었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러한 확신은 ‘지문을 얼마나 정확히 읽어냈는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노나가 이쿠지로는 폴라니의 견해를 계승했으므로 ‘견해의 변화’라는 표현은 다소 어색합니다. 또한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은 더욱 확실히 **부적절**합니다.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 5문단의 ‘하지만~어렵다.’로 인해 지식 경영론의 단점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이 ‘두 견해의 장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시각’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게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이 진짜 기출 공부입니다. 수준 있는 문항의 경우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손으로 일일이 쓰라는 것’은 아니니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 과정은 반드시 거쳐 보아야 합니다!**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순 내용 일치/불일치와는 달리 일정 수준의 추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단순 내용 일치/불일치의 수준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문의 특성상 ‘추론을 요구할 것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수능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추론’은 무엇인가?

: 우선 ‘추론’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다루고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추론 =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 냄.”

가장 대표적인 예로

1) 모든 사람은 죽는다. 2)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3)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1)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2) 아침에 보니 길이 젖어 있었다. 3) 따라서 밤에 비가 왔을 것이다.
---	--

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개연vs필연의 문제는 나중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A와 B, B와 C를 통한 C와 A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 간의 관계를 찾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정도보다도 훨씬 복잡한 추론은 존재할 수 있으나, 결국 근본적으로 추론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특히 난이도가 높은)에서 접하게 될 것이므로 개념을 명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① 플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플라니는 ‘명확하게~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 유리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② 플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1문단에 적용된 논리를 바탕으로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3문단에서 등장한 ‘경우의 분류’ 중 ‘대소 관계’에 따르면 지식의 공유 가능성은 명시지가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와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4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나카는 ~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등장하므로 **적절합니다**.

⑤ 플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 살짝 알미운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플라니가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가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선지를 자칫하면 ‘노나카는 암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미 ‘정답에 대한 확신’은 선지 3번에서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민이 설사 발생했다 할지라도 흔들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합니다**.

☞ 사실 해당 문항은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항에서도 분명히 배워야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1) **‘정답에 대한 확신’** : 이미 지문을 읽으면서 ‘경우의 분류’에 주목하며 읽어낼 수 있었다면 선지 3번이 확실히 부적절함을 별다른 시간의 소비 없이 알 수 있습니다.

2) 선지 1번과 2번에 담겨 있는 **‘추론의 깊이’**

① 플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해당 선지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통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입니다. 물론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충분히 직관적으로 해결 가능했던 선지이지만 평가원이 요구하는 ‘추론’의 수준을 가능해볼 수 있었던 문항이므로 해당 선지에 반영되었던 사고는 한 번쯤 다시 되새김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플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여기서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라는 표현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게 됩니다.

=> 즉 ‘모든 지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외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직은 매우 쉬운 수준의 추론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추론의 깊이가 더욱 깊어진 것들을 만났을 때에도 위와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항으로 가봅시다!

6.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례' 문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문의 내용에 대응시킨 이후에 각 선지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간혹 우리에게 일정 수준의 '직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떤 선지들은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당황하지 말고, '정답이 확실'하거나 '정답이 아닌 녀석들이 확실히 지워'지거나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연결화'는 '명시지와 명시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느낌'의 경우 명시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합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절**합니다.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표출화'는 '암묵지 요소 중 일부가 객관화되어 명시지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재분류 및 결합하는 행위는 '명시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내면화'는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이고, C사의 직원은 명시지인 '터치스크린 매뉴얼'을 숙련 노력('실제로 반복 사용')을 통해 암묵지('감각적 지식')로 전환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①번과 같은 논리에 의해 **부적절**합니다. '교재'는 명시지이고, '직원들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암묵지에 속하므로 오히려 내면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 '공동화'는 '암묵지가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한 것은 명시지로 보아야 하고,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 역시 명시지로 보아야 하므로 **부적절**합니다.

☞ 역시 해당 문항도 우리에게 크게 어려움을 부여한 문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문이나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지문 읽기와 문항 풀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7. **읽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문학/비문학에 관계없이 <보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보기>를 대응시키라는 것입니다. 주로 지문에 나온 원리가 <보기>의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문과 <보기>의 대응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억지로 하려고 하기 보다는 일단 선지로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는 뭘든지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가 되기 때문입니다.

< 보 기 >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F사는 '가시적인 지식(명시지)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무형의 지식(암시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암시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향을 취해야만 합니다.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은 명시지에 속하고, 해당 선지에서는 암시지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지문을 보다”와 “문장을 읽다”의 정의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인문]**

**[1문단]**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① 의무 윤리 든 행위의 ②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③ 덕의 윤리 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2문단]** 그러나 ④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⑤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⑥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3문단]**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4문단]**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5문단]**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⑦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⑧ 그러나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6문단]**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⑨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⑩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결국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1문단]** “필자의 주장” 등장

: 필자는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A만(Only)’이라는 표현은 ‘A 외엔 예외가 없다’는 표현으로써 해당 지문에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2문단]** “필자의 주장과 다른 주장”의 등장(= 반박, 대립 관계의 시작)  
: ‘어떤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필자와 달리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문단이 1문단과 대립 관계를 띠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 그와 동시에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라는 표현을 활용했고 ‘첫째’라는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다음 문단에서 ‘둘째, 셋째’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종류의 도덕적 운은 ‘태생적 운’으로서 성품과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 결정되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3문단]** “두 번째 종류의 도덕적 운(2문단의 연속)” & 예시

1) : 두 번째 종류의 도덕적 운인 ‘상황적 운’은 사람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 예시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해당 문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문단]** “세 번째 종류의 도덕적 운(2문단의 연속)” & 예시

1) : 세 번째 종류의 도덕적 운인 ‘결과적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 역시 예시에 의해 충분히 쉽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문단]** 필자의 재반박의 시작

: ‘어떤 철학자들’의 주장대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 따라서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함(1문단에서의 주장 재확인).

**[6문단]** 필자의 재반박의 연속

: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  
: ‘어떤 철학자들’의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을 모두 반박하면서 부정함.

1.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해당 문항은 사실 '설명문 vs 논설문'의 개념 구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로서 필자의 주장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해당 지문과 같은 논설문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서 필자의 주장이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지문에 등장한 타인의 주장이나 사상에 동조·반박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지문은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과 이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의 구조를 띠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때 대립 관계를 띠고 있는 양측은 '차이점'과 더불어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지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글쓴이와 반대 측 주장 간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 '상식'이라는 단어는 6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글쓴이가 도덕적 평가에서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선지입니다.  
=> 일단 넘어가세요!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글쓴이는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 역시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글쓴이와 반대 측 주장 간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 ㉠은 같은 상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같은 성품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의 경우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 ㉠의 경우, 도덕적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이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역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대립 관계'가 등장했을 때, 평가원은 이렇듯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묻기를 좋아합니다(Ex : 14\_9\_B\_인문, 14\_수능\_B\_인문). 이러한 유형의 선지 구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1번은 어째서 부적절할까요?

선지를 다시 한 번 뜯어서 살펴봅시다.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살펴봅시다.

"결코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 )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무책임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동일하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은 글쓴이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1번은 **부적절**합니다.

\* 위의 ( )에 '그럼에도'라는 접속사를 추가하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제가 해당 문항에서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번이 '이러저러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시험장이라면' 1번 선지는 일단 넘기는 것이 더욱 실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애매하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다보면 일정 수준의 평균으로 수렴할 것이므로 애매한 선지는 일단 넘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답만 찾으면 되므로 굳이 시간을 먼저 소비하고 나서 답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 ㄴ.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 ㄷ.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 ㄹ.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 ㉡에 따르면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대상은 '무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ㄴ'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ㄷ'은 무지에 속하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① ㄱ, ㄹ입니다.

3.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A와 B 모두 동일한 성품을 바탕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행위를 하게 되었지만, A는 골을 넣었고 B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A보다 B를 더 비난하는 모습에서 4문단의 '성공한 화가와 실패한 화가'의 경우와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 즉 '결과적 운'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글쓴이의 입장에 선 사람이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여기서 '정답에 대한 확신'이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번에서 정답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 나머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애매한 선지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해당 선지를 찍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세한 논의는 강의에서!)

②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 <보기>에서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으로 A를 비난한 적이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 A와 B 중 누가 더 무모하고 독선적인지는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 안 된다고 본다.

=>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라 할지라도 성품의 발현이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 3번과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누가 더 무모한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휘 문제는 사실 지조차 어떻게 풀어내야 한다는 방침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으면 맞히고, 그렇지 못하면 틀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무책임하면서도 가장 실전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출제 의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어휘 문항도 존재하기에(Ex : 15\_수능\_b\_20) 추후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① ㉠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② ㉡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 ③ ㉢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 ④ ㉣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 (정답)
- ⑤ ㉤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 최종적으로 3번과 4번 사이에서 고민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3번에서는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번에서 '알맞게 이용'이라는 표현은 '국한'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행복은 차분한 일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방어만 한다면 인연을 만날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

부자유과 문제가 두려워 숨어 지내며  
행복도 평안도 오지 않는다.

모험과 도전이 두려워 물러나면  
나라는 존재 역시 죽어갈 뿐이다.

낯선 사람과도 인간과 교류 맺으며,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들고, 상처받을 수도 있음

반어법일 때만이 진정 성장하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읽는 긍정의 한걸음』 中

< “지문을 보다”와 “문장을 읽다”의 정의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사회]**

[1문단]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문단]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 부른다.

[3문단]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문단]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5문단]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1문단] “예시”의 등장

- 1) E → P : “내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
- 2) P → E : 수용
- 3) E가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도 소송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음
- 4) P가 E를 소송 : “내가 승소해도, 네가 승소해도 수강료를 받게 된다.”  
: 소송에서 이겼으니 : 내가 처음으로 승소했으니
- 5) E의 반박 : “내가 승소해도, 네가 승소해도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소송에서 이겼으니 : 아직 나의 첫 승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2문단] “예시의 이해”(1문단과 연결 짓기!) & “개념”의 제시

- 1) ‘효과’ : E의 수강료 지급
- 2) ‘실현되지 않은 사건’ : E의 승소
- 3) ‘기한’ : 효과(수강료 지급)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 4) ‘조건’ :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  
=> 조건이 실현되어 효과를 발생 : ‘정지 조건’ => 수강료 지급 O  
=> 조건이 실현되어 효과를 소멸 : ‘해제 조건’ => 수강료 지급 X

[3문단] “개념”의 제시 & “예시”

- 1) ‘기판력’ :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 종결 ||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경우  
=>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음.  
Ex)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  
=> **판결이 확정**(기판력 발생)되고 나면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소송할 수 없음.

[4문단] 위 예시(기판력)의 예외 & 새로운 예시의 등장

- 1) 확정 판결 이후에(기판력이 생긴 이후에) 다시 소송할 수 있는 조건 :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Ex)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확정 판결 : 기판력 有)”  
=> If “계약 기간이 만료(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의 발생)”  
=> 임대인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집을 비워 달라고 다시 소송할 수 있음

[5문단] “첫 예시에 개념의 재적용”

- : P와 E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1) 첫 번째 판결 : E의 첫 승소가 이뤄지지 않았다(조건 미성취)는 이유로 E의 승소  
=>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의 발생 : 조건의 실현(E의 승소 즉 계약 기간 만료)  
=> 첫 번째 판결이 확정 판결이더라도 P는 다시 소송할 수 있음
  - 2) 두 번째 판결 : E의 첫 승소가 이뤄지는 이유로 P의 승소  
=>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E가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음  
=> E의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추론'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효과의 발생'은 '수강료 지급'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수강료의 지급'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 사실 위의 논리(개념의 정의에 입각)보다 5문단에서 E의 첫 승소를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해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해당 선지를 처음 접했을 때 '개념의 정의' 부분으로 갔을 것이라 예상하고 위와 같은 논리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장래에 '확실히' 발생하든, '일어날 수도' 있든 결국 '장래에'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큰 틀에서 '대립 관계에서의 공통점' 정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해제 조건'은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3문단 초입부에 그대로 나와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 역시 3문단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결과적으로 출제자가 선지 1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 전부였던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사 1번이 애매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선지를 지우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대놓고 '추론'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E가 첫 번째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내가 첫 승소를 하기 전까지는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야 하므로 **부적절**합니다.

=> 물론 P 역시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P의 입장에서도 E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자신은 수강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첫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승소하게 되므로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실릴 것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어찌 보면 애매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엔 당연히 P의 입장에서는 E에게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적절하다'는 확신까지는 얻기 어려웠을 지라도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지점이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럴 땐 그냥 넘어가세요!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소송 전에 첫 번째 소송에서 E는 승소하게 되므로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이 각각 E의 승소, P의 승소로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판결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 3번이 애매했다 할지라도 **정답**은 확실히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가 모두 확실히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어쩌면 3번 역시 확실히 지워냈을 수도 있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P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소송이든, 두 번째 소송이든 결과적으로 '소송의 목적'이 'E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청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학생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죠. 물론 해당 문항은 '추론' 문항이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그대로 있으리라는 기대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정말 별것 아닌 것조차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선지에서 고민하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합니다. 앞으로도 '애매한 선지는 일단 넘어간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다시 한 번 지문과 <보기>의 대응!

<보 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지문과의 대응지점

(가) :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  
 ⇔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  
 => 계약서를 발견해도 다시 소송할 없음  
 ⇔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다시 소송할 수 없음.

(나) :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 & 갚기로 한 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패소  
 ⇔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소송한 임대인이 패소  
 =>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소송할 수 있음.  
 ⇔ 을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다시 소송할 수 있음.

(가)와 (나)의 결정적 차이  
 :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의 발생 유무 가능성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적절합니다.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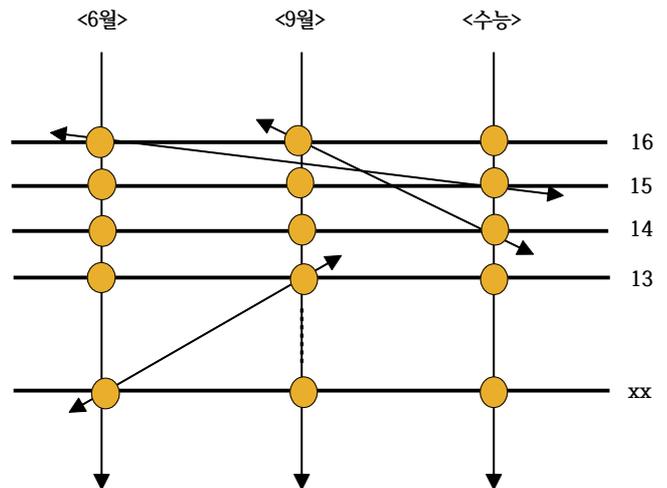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돈을 갚기로 한 날'이라는 기한이 도래해야 새로운 법적 사정이 발생하고, 그래야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적절합니다. 3번의 경우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고, 4번의 경우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송이 가능합니다.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 새로이 발견된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발견을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4문단에서 쉽게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1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휘' 문제는 특별히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해당 문항은 선지 5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지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2번이 '가장 어색함 없이 적절하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 ① ㉠ : 수취하였다
- ② ㉡ : 부가하는 (정답)
- ③ ㉢ : 지시한다
- ④ ㉣ : 형성되었을
- ⑤ ㉤ : 경유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만큼의 기출 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많이 힘들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만이 그제야 'n회독'이라는 표현을 쓸 있습니다. 부디 '공허한 n회독'에 빠지지 마시고, 1번을 분석하더라도 지문의 구조, 선지의 구성, 나를 고민하게 만든 선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사고과정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일정한 패턴 아래에 저장해 두어야 그게 진짜 국어 공부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일정한 규칙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시험장에서 내가 갖춰야만 하는 '규칙'을 형성할 것입니다.

< 최악의 상황 : Worst-Case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과학]

[1문단]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문단]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3문단]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4문단]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 많은 학생들이 ‘과학’ 지문을 접하는 순간, 대체로 몸이 굳어 버리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과학 지문은 우리에게 약간의 수학적 사고, 간단한 연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학적 사고나 연산을 수리 영역에서 접하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다들 ‘ㄱㅅㄱㅅ’하면서 쉽게 풀어나갔죠. 미분도, 적분도, 공간 도형도 다룰 줄 아는 여러분이 굳이 주눅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경향에서 과학 지문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부딪혀 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래보야 낮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를 요구할 뿐이고, 다행히도 다른 갈래의 지문에 비해 지문이 구성되는 원리와 문제가 구성되는 원리가 더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문단] “간단한 수식” & “일정 관계”의 제시 & “예시”

- 1) 중력 = 질량 × 중력 가속도 =>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
- 2) 부력 :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 =>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  
=> 예시 : 빗방울 vs 스티로폼  
=> a. 빗방울일 때 : 공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부력의 영향이 미미함.  
b. 스티로폼일 때 : 공기의 밀도가 물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부력의 영향이 커짐.

[2문단] “비례 관계의 항연”

- 1) 항력 =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  
=>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  
=> 항력 ∝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 항력 = 마찰 항력 + 압력 항력  
=> 마찰 항력 ∝ 유체의 점성, 물체의 표면적  
=> 압력 항력 ∝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

[3문단] “경우의 분류” & “반비례 관계의 제시”

- 1) 작은 물체가 떨어질 때 :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 차지
- 2) 큰 물체가 떨어질 때 : 마찰 항력은 무시할 만함.  
=> 마찰 항력 ∝  $\frac{1}{\text{물체의 크기}}$   
=> 마찰 항력 ∝  $\frac{1}{\text{압력 항력}}$

[4문단] “간단한 수식” 제시

: “빗방울의 낙하 속도 증가” → “항력 증가” → “항력 + 부력 = 중력”  
→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됨 : ‘종단 속도’

- “시간 분배”의 정의

어려운 지문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따라서 “시간 분배”의 정의는, ‘모든 지문을 n분 안에 풀겠다’가 아닌,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두겠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풀게 될 문제를 통해 ‘지문 혹은 문제가 어렵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워 보도록 합시다.

1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역시 '추론'

①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 3문단에서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고 나와 있으므로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②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마찰 항력'과 관련이 있고, 그렇다면 '마찰 항력'이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으므로 '마찰 항력'이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과 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0'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물론 상식으로 중력 가속도가 9.8m/s라는 것으로 판단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만 했을 것입니다. '추론'이라기보다 단순 내용 일치/불일치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④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해당 선지에서 걸리는 표현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라는 부분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이 '어떤 물체'에 해당될 것이고, 이에 의해 배제되는 액체의 부피만큼의 무게가 부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력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될 것입니다.

=> 이때 부력은 항력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따로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은 **적절**합니다. (정답)

=> 그러나 '지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다 혹은 부적절하다'는 사고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사고의 기저에는 '내가 못 찾은 것 아닌가'하는 염려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비례/반비례/일정 관계'를 주목해서 읽고, 놓치지 않고 표기하는 습관이 바탕이 되어야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것 같다'는 정도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아니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 다시 선지 4번과 연관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쇠막대'는 동일한 쇠막대이고, 그렇다면 쇠막대가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배제되는 액체의 부피가 차이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관이 적절하게 작용한다면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이에 의해 배제되는 액체의 부피는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엔 확신을 가지고 5번을 지움과 동시에 다시 선지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하겠죠.

=> 그러나 직관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하여 4번과 5번 사이에서 해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냉철하게 일단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즉 '틀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장은 매우 냉철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이게 진짜지!

< 보 기 >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지문과의 대응지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지문과의 대응

- 밀도 : 공기 > B > A
- => 그런데 A와 B의 크기와 모양이 같음
- => 물체의 표면적(마찰 항력), 물체의 단면적(압력 항력)도 같음
- 물체 A와 B의 상승 속도
- => 공기 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놓아주었는데 낙하하지 않고, 상승했다는 것으로 보아 '부력'이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
- => '그렇다면 A와 B 중 어느 경우에 더 부력이 크게 작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발생
- => 1문단의 예시 활용
- => 빗방울일 때 vs 스티로폼일 때
- => 빗방울일 때에 비해 스티로폼일 때 부력의 영향이 더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스티로폼이 공기와 비교했을 때, 빗방울에 비해 밀도가 더 작기 때문.
- => 빗방울 : 스티로폼 = B : A
- => 따라서 동일한 공기를 놓고 밀도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밀도가 작으므로 B에 비해 부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됨.**
- => 이에 따라 **상승 속도는 A가 B에 비해 크다는** 추론 가능.
- => 이때 항력은 속도와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항력 역시 A가 B에 비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 이로 인해 '종단 속도' 작용

※ 근데요, 이게 시험장에서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합니다. 시험장에서 위와 같은 지문과 <보기> 간의 대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위와 같은 사고의 50%만 할 수 있어도, 남들과는 다른 출발점에서 선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역시 위와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요구했던 문항의 경우, **15. 수능\_B [과학], 14. 수능\_B [과학], 13. 수능 [과학]**

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를 하는 '연습'만이 답입니다. 바로 펴놓고 도전해 보세요!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물체가 유체 내에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 2문단 시작 부분을 봅시다.  
 “**물체가 유체 내에서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 ‘~와는 달리’라는 표현은 사실 없어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를 언급했다는 것은 문제화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문제화하기 좋은 표현이 됩니다.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A와 B의 ‘항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러나 A와 B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으므로 이 둘을 활용하여 항력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물체가 갖는 속도를 비교해야 하고, 둘 중 부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 A이기 때문에 A의 속력이 더 클 것이라는 추론을 통해 항력 역시 A에 더 크게 작용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의 추론은 매우 수준이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직관 혹은 상식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각을 시험장에서 한 번에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출에 있는 수준 높은 문항들에 담겨 있는 난이도 있는 추론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 A와 B를 비교한 것이 아닌, A 하나를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부력은 일정할 것이고(12번 문제에서 확인했죠), ‘중력의 크기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때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의 중력 vs 고정되어 있을 때의 중력”을 비교해야 하는데, 1문단에 의하면 중력은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지의 경우, 두 상황 모두 낙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중력은 ‘질량×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물체가 상승을 하든, 하강을 하든, 고정되어 있던 동일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애매했다면 넘기는 수밖에.

※ 개인적으로는 평가원이 이 정도의 추론은 문/이과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식’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선지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 선지 자체가 모순입니다.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의 경우, B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1문단에서 빗방울 vs 스티로폼) 결과적으로 부력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 따라서 상승 속도가 공기일 때보다 더 클 것이고, 이에 따라 항력 역시 이에 비례하여 더욱 크게 작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 선지 2번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사고가 연속된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느끼셨을 겁니다. 위의 세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노력보다, 이 한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노력이 압도적이라는 거요. 그리고 당연히 출제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힘을 들인 지문과 문항이 바로 이번에 다른 녀석들입니다.

앞에서 ‘시간 분배’의 정은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몇 분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직결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직 우리가 문학이나 화학은 영연 전혀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애크 먹게 되는 상황은 결국 비문학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매번 학생들은 평가원이 ‘**디통**을 친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제는 디통을 치지 않았어나요? 언제는 우리와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습다. 그리고 온전히 시험의 책임은 우리의 몫일뿐이지.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만의 원칙하에 일정한 바운드를 넘는** 신의 뉘앙스’를 구체적인 상(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5, 14, 13학년도 수능 과학 지문을 반드시 풀어 보세요. 그리고 부디 단순히 ‘**핀다**’의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핀 문항과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거든 ‘**지문의 구성, 선지의 구성, 나를 고민하게 만든 방식 등**’ 여러 영역에서 반드시 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규칙화하여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일정한 바운드를 밟을 수 있는 걸 목표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